



후보돈 도입에서 교배까지의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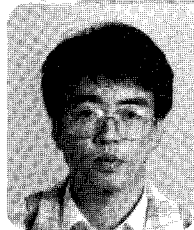
후보돈의 구입 및 관리는 약 1년 후의 출하 물량확보와 직결된다. 즉 현재의 후보돈의 상태와 관리 상황은 향후 농장의 생산성을 예측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모돈 운영 체계에 있어서 비교적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매년 여름철에는 임신율이 저조하고 모돈의 사고로 인한 도태율이 높으므로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4월~5월경에 후보돈 도입을 평상시 보다 추가로 약 50% 정도를 더 확보해 놓아야 한다. 따라서 후보돈 관리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이에 대한 관리 체계를 미리 점검해 보도록 해보자.

1. 후보돈 구입

여름철 교배를 목적으로 후보 입식을 할 경우 4월 또는 5월까지의 농장내로 도입이 완료되는 것이 좋다. 또한 이 시기에는 평상시 필요로 하는 후보돈의 50%정도를 추가로 도입한다.

- 1) 후보돈 구입 두수 결정
 - 매월 일정 두수를 고정적으로 구입하는



이재춘 원장
한별 피그클리닉

것이 중요

- (예 : 모돈 100두 경우 = 월 5두씩 후보구입)
- 매년 4, 5, 6월에는 월 구입 두수의 50%를 추가 구입
 - 모돈을 증식할 경우 필히 증식계획서 작성 후 결정한다.

- 2) 구입처의 단일화, 종자의 통일화
- 3) 후보구입시의 일령 : 140~150일령 (80kg 전후)
- 4) 구입시 생일, 품종은 반드시 확인
- 5) 후보돈 전용 수용장소 확보

2. 농장 도입후 관리

후보돈 도입에서 3주까지의 기간은 호적등록과 환경적응 및 질병전파의 차단을 위한 방역기간이다.

- 1) 농장내로 도입시 돈체소독 실시
- 2) 항생제 주사 - 지속성제제 (극도로 흥분 시 진정제 주사)
- 3) 격리사에 수용 - 3주간 (격리사 없을 경우 웅돈과 떨어진 군사돈방에 수용)
- 4) 개체번호 부여
- 5) 현황판 즉시 설치



- 6) 도입 당일 절식 (음수만 공급)
- 7) 익일부터 육성돈사료 급여 (3일간 점차 증량후 무제한 급여)
- 8) 매일 건강상태 점검 (보행상태, 이상행동, 분변, 상처, 식욕등)
- 9) 도입 3일후 내외부 구충 실시, 태반 + 자돈 설사분변 급여
- 10) 도입 1주후 돈단독 백신 접종
- 11) 도입 10일후 부터 항생제 사료첨가 (치료 용량으로 10일간)
- 12) 도입 3주후 웅돈 근처의 군사돈방으로 이동

3. 후보돈 발정축진을 위한 관리

후보돈의 초발정은 관리방법에 따라 인위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할 경우 후보돈은 게을러지며 그후 두고두고 게으른 모돈이 되어버리므로 처음부터 바쁘게 돌아가도록 길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 1) 도입후 3주가 지나면 격리사에서 웅돈 근처의 돈방으로 이동 (160일령)
- 2) 사료는 육성돈사료로 자유급이(180일령 까지)
- 3) 매일 2회 (아침, 저녁) 웅돈과 접촉
 - 아침, 저녁 각각 10분씩 접촉
 - 접촉 웅돈은 10개월령 이상된 성육이 왕성한 개체를 이용
 - 아침, 저녁 다른 웅돈을 번갈아 후보돈방에 넣어 접촉시킨다
 - 일주일에 하루는 후보돈들을 웅돈방에 넣어 접촉시킨다
 - 웅돈과 접촉중 일때 발정을 확인한다 (매

매년 여름철에는 임신율이 저조하고 모돈의 사고로 인한

도태율이 높으므로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4월~5월경에

후보돈 도입을 평상시 보다 추가로 약 50% 정도를 더

확보해 놓아야 한다.

일)

- 웅돈접촉기간에(170일령) 파보백신 1차 접종, 2차는 200일령에 접종

4) 접촉후 20일이 지나면(180일령) 초발정이 오기 시작한다.

5) 180일령에 초발정이 오게되면 즉시 체형 관리, 즉 과비방지를 위한 사료조절이 필요하다. 임신돈 사료로 1일 2kg정도로 제한 급여한다.(이 때 돈방내 서열에서 밀려 사료를 조금 밖에 먹지 못해 야위는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200일령에 2차 발정을 원활히 유도하기 위해서 발정예정 3일전부터 사료량을 늘려준다.(임신돈 3kg/일 또는 포유돈 2.5kg/일)

7) 200일령에 2차 발정이 오게되면 군사돈방에서 교배 스톨로 이동하여 스톨 적응을 하도록 하고 사료조절을 포함한 개체별 관리를 철저히 한다. 이 때 임신돈 사료에서 포유돈사료로 전환 급여한다.(2.5kg/일)

8) 220일을 전후로 교배(3차 발정, 체중 125kg))

- 교배예정 2주전부터 사료 증량 (3kg/일)

- 교배예정 1주전부터 매일 웅돈 접촉

* 후보돈 교배예정일 산정 방법 (예)

180일령 초발정 → 201일령 2차발정
21일

→ 222일령 3차발정
21일 (교배예정일)

9) 순종의 경우 F1보다 늦은 240일을 초교배 목표일령으로 한다.(체중은 130kg)

4. 초발정지연돈 대책

초발정이 빨리오는 후보돈이 번식성적이 우수한 모돈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초발정 일령이 늦어지는 경우 보통 후보돈 자체의 결함보다는 관리의 방법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게되므로 번식성적이 우수한 모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후보돈의 초발정을 조기에 유도하도록 관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더불어 초발정이 지연되는 후보돈은 아래의 지침에 의거 관리를 하여 건전한 돈군을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 1) 180일령 까지 발정 안온 후보돈에 비칸톨E 3ml 주사한 후
 - 발정 안온 후보돈들을 따로 수용
 - 사료에 영양제 첨가급여
 - 건강및 영양상태 점검(특히 과비 방지)
 - 매일 응돈 접촉 - 발정확인
- 2) 200일령 까지 발정 안온경우 균편성을 새로함
 - 발정안온 다른 후보돈들과 혼합하여 새로 균편성
 - 수용장소 변경
 - 사료급여량 개체별 조절
- 3) 220일령 까지 발정 안온 후보돈에 호르

문제 주사(PMS, PG600, 수이단)

- 비칸톨E 3ml 주사
- 새로 균편성 및 차량 이동

4) 240일령 까지 발정이 안 오는 후보돈은 상기 관리를 한 번 더 해주되 270일 까지 발정이 안 온다면 그 후보돈은 번식기능이 좋지 않으므로 도태를 결정한다.

5. 후보돈 도태기준

될성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였듯이 싹이 노란 후보돈을 붙들어 놓고 공을 들여, 결국 자돈 생산까지 했다 하더라도 이득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농장의 수익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로 자리 잡게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준수하여 후보돈 관리를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돈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침에 의거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다. (보통 후보 도태율은 10%정도를 정상 도태율로 인정한다.)

- 호흡기질병을 심하게 앓고 있거나 앓았던 개체
- 열성질환 및 피부농양이 있는 개체
- 항문탈이 발생한 개체
- 지체가 약한 개체
- 외음부 및 유두가 고르지 않은 개체
- 식욕이 고르지 못한 개체
- 발육 및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개체
- 심한 외상이 있는 개체
- 270일령 까지 초발정이 안온 개체
- 300일령 까지 임신이 안된 개체
- 기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개체 **양돈**